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중)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에 나선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수혜 받는 지역은?

안산시가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때는 올해 초다.대부북동,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등 4개 법정동에 걸친 총 23개소(971만2771㎡)로, 이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면적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특히 폐염전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지역은 폐염전 지역과 바다낚시터로 이용되던 부분의 개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부해안로 일원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과 주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지역이 경제·사회적으로 크게 변해 과거 설정된 보전녹지 용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은 이 지역이 해안도로 신설이후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혜택지역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기존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경계지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던 보전녹지 지역이나, 지역을 일직선상으로 나누다 보니 공무원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도록 지정된 보전녹지의 경우 자연녹지로 해제하게 된 지역을 들 수 있다.

이제 도로폭 확보를 보도록 하자.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을 보면 대지면적이 2천500㎡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m 이상, 2천500㎡ 이상에서 5천㎡ 미만은 6m 이상, 5천㎡ 이상은 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 제시와 함께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완화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대부도 주민들이 “당초 취지는 환영하지만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많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수업을 간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제 대규모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긍정과 부정을 보자.

적은 규모를 개발하는 2천500㎡ 미만인 경우 4m(현재 대부분 2.5m~3m 도로) 이상 도로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곳의 8m 이상 도로 확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기존 건폐율 20%에서 30%까지 가능토록 한 인센티브에 비교하면 도로폭 8m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은 바로 폐염전 지역의 개발이나 기존 바다낚시터로 사용되던 지역의 개발이다. 이 곳은 개발면적이 대부분 3만㎡ 내외로 일부는 3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지역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곳으로 이런 곳이 활성화되면 대부도 5만인구 프로젝트에도 함께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규모 지역으로 3만㎡ 내외

인 곳 중 대부남동 말봉낚시터가 개발허가를 받고 개발중이며 대부북동 구봉도 지역 서울낚시터는 개발허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5천㎡ 이상의 개발지역으로 진행중인 곳은 대부도에서 대부남동 지역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으로 2군데, 선감동 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1군데 등 총 3군데가 대규모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도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도로폭 8m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존도로에서 일정부분 사도를 지나 개발되는 염전지역과 연결될 경우 사도의 도로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원체계가 있어야 대부도에 민간투자(민투)가 활성화되고 대부도 5만인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투, 주민,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로 보여 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동춘서커스, 창단 100주년 안산시에 재능기부 펼친다



동춘서커스가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안산시민들에게 문화나눔 재능기부를 펼칠 계획으로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동춘서커스 박세환 대표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1,500만 원 상당 무료 공연 진행... 600여 명 초청 안산시와 함께 문화나눔 실천... 오는 7월부터 진행

안산시는 동춘서커스(대표 박세환)가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문화나눔 재능기부를 펼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동춘서커스는 1925년 창단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 서커스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시의 문화관광 자산이다. 현재는 대부도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12일 안산시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 상록노인지회 수석부회장, 단원노인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춘서커스의 재능기부 전달식이 개최됐다.

동춘서커스는 오는 7월부터 상록노인지회와 단원노인지회 소속 어르신 600여 명을 대부도 공연장으로 초청해 무료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은 입장료 약 1,5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게 된다.

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는 “100년을 이어온 전통 서커스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동춘서커스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재능기부는 지역 어르신들이 특별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업체와 협력해 시민 모두가 문화관광으로 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市,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9월 파견 예정

관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2개 사 선정 항공료 50% 지원 최대70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강화를 위해 '2025년 안산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베트

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총 12개 기업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며 ▲상담장 임차료 ▲통역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 ▲항공료 50%(최대 70만 원) ▲단체차량 등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관내에 분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시는 시장성 평가를 우선으로 하되, 60점 이상 기업 중 여성기업을 25% 선정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업체나 최근 3년간 사업 선정 후 포기한 업체, 단순 유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 후 참가신청서, 중소

기업확인서,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수출 파트너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 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지원부문 명기)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중견클럽인 안산제일로타리클럽 꾸준히 봉사활동 이어가 화제

매월 첫째주 수요일 봉사 4일에는 사랑나눔터에서

42명의 중견클럽으로 성장하고 있는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이 안산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은 봉사활동을 펼친다. 4일 수요일에는 선부동성당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터에서 지역내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매년 김중균 회장과 차기 문곡 배상모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재료손질, 배식, 설거지, 뒷정리까지 몸소 진행하며 봉사의 참맛을 느꼈다.

안산제일로타리클럽 김중균 회장은 "저희 로타리클럽은 매월 하루씩 이런 봉사를 하면서 회원간의 화합과 봉사의 참맛을 느끼고 있다"며, "봉사할 때 가장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산 고잔신도시에서 비에이성형의 과를 운영중인 차기 회장 배상모 원



42명의 중견클럽으로 성장하고 있는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이 안산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산제일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지난 4일 선부동성당이 운영하는 사랑나눔터에서 지역내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기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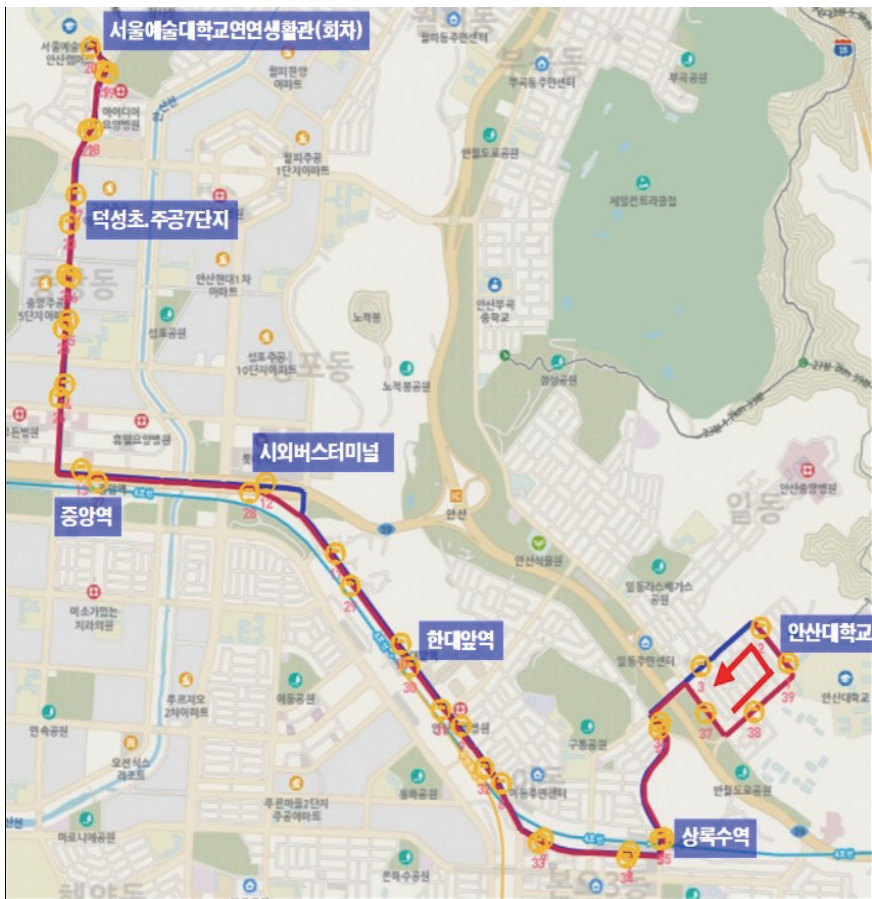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은 "물질로만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몸소 실천하는 봉사를 할 때에 참된 봉사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안산제일로타리 클럽은 지난 12년 동안 안산지역에서 초대 정암 류복현 회장을 시작으로 지역에 봉사하고 있으며, 클럽사무실은 안산 단원구 초

지동 743-2, 5층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봉사에 뜻이 있는 분은 안산제일로타리클럽(031-484-375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서울예대-안산대 잇는 171번 버스 신설... 본격 운행 시작



안산시는 관내 주요 교육 기관인 서울예술대학교와 안산대학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인 171번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윤영 기자

두 대학뿐 아니라 일동 지역 상록수역 한대앞역 터미널 중앙역 등 주요 거점 운행

안산시는 관내 주요 교육 기관인 서울예술대학교와 안산대학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인 171번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171번 버스 노선은 두 대학뿐 아니라 ▲상록수역 일동 지역 ▲상록수역 ▲한대앞역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역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운행한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적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버스노선 신설로 학생들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일반 시민에게는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는 총 2대가 투입돼 매일 24회 운행된다. 버스 운행은 경원여객자

차(주)에서 운영을 맡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171번 버스 노선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윤태균 서울예술대학교 총장과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번 노선 신설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양교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171번 버스 노선 신설은 지역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영 기자 debora7@naver.com

KTIX 시대 앞둔 초지역 市, 환승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 박차

초지역, 수도권 남서부 최대 환승 허브로 455면 규모 환승주차장 조성 서두른다

안산시는 내년 말 초지역 KTX 정차에 대비해 대형 환승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총 455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KTX와 도시철도 등 5개 철도노선이 집중되는 교통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10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 규모를 비롯한 향후 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KTX 시대'에 부합하는 환승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초지역은 수인선, 안산선(4호선), 소사원시선(서해선), 신안산선(개통예정), KTX(개통예정) 등 향후 도합 5개 철도노선이 집중되는 교통 거점으로 일일 약 2만 3,861명 이상의 이용객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남서부 최대 환승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023년 단원구 초지동 43-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3단 구조로 총 455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하반기 준

공을 목표로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 변경 등 법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민원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 조성 사업이 단순한 주차장 조성을 넘어 ▲KTX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환승 체계 구축 ▲자가용-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접근성 확보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 및 도시경관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환승주차장 등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초지역은 수도권 남서부 권역과 전국에 고속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정차역으로 부상 중이다. 이번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 거점 기능을 보완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초지역이 KTX 시대의 중심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는 만큼, 환승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와 도시경관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윤영 기자 debora7@naver.com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이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양윤영 기자

李 시장, 8·9급 직원과 티타임 소통... 수평적 문화로 행정 혁신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조직 내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일부터 '일선 직원과 함께하는 시장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8·9급 직원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조직 내 소통과 신뢰 강화하기 위해 마련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조직 내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일부터 '일선 직원과 함께하는 시장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공식 경험이지 아직 많지 않은 8·9급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 내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가 시청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 행사는 관내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으며, 다음 달까지 상록구와 단원구 전역에서 약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회차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여해, 일상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 혁신적인 제안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시청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식 내부에 현장 중심의 시청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공직사회 내 수평적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 그리고 자유로운 혁신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 이훈우 캠프하이프 이사
- △ 진영철 대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 이정훈 박순자 전 국회의원 비서



강태형 의원, 도지사, 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 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외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외상장애인 실태조사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울산, 육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 경기도 공무원 대외직명제(홍길동씨법) 추진 현황 점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관리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추진,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숙행씨법) 이행 점검, ▲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장소 운영 내실화,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처우개선 및 대외직명제 도입 필요성 등 도정·교육정책의 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2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

에게 진심 행정, 진심 책임 행정, 진심 교육 행정, 책임 교육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 소재 경작지 피해 농업인 등 지원 대상 명확화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해자 중심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제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양운영 기자
debor7@naver.com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

아동그룹홈 안정적 운영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 방안 논의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

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GH는 현재 도내 10개 시에서 전용 면적 82.5㎡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39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과 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주택을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에는 광주(6호), 수원(4호), 여주(44호), 안양(4호 예정) 등 4개 시에서 총 58호의 신규 주택을 확보해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지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내 아

동그룹홈을 대상으로 개소당 약 80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GH와 우리은행,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아동그룹홈과 주거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중 남부·동부·서부·북부 등 4개 권역별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는 ▲기초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권역별 정담회 추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과 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아동복지 및 자립준비 청년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6월 4일 있었던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운영 기자

도심속의 힐링 장소!!

남녀노소 편안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안산지부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대부도 공영주차장 발전소 준공식... 오는 10월 개최

대부도협동조합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결

대부도협동조합(이사장 양운영) 2025년 제3차 이사회가 9일 오후 선감생활동 세미나실(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01-19 경기창작센터 내)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보고 △발전소별 매출 현황 보고 △2025년 신규발전소 설치 진행상황 보고 △에너지협동조합 연대사업 실적 보고 등이 이뤄졌다.

주요 의안 심의로는 주사무소가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생활동 204호로 변경되었음이 보고됐다.

대부도 공영주차장 발전소 준공식 추진위원회 구성도 알려졌다.

추진위원회는 양운영 이사장, 김시경 전무이사, 최인모 이사, 김옥경 사무국장으로 구성을 마쳤다.

작공식은 10월에 하기로 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행사의 규모와 홍보 및 축하공연 등을 준비하고 조합에서 첫 번째 치르는 준공식인 만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잔치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홍보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우편물, 문자, 카카오톡 등 계속 유지 하면서



대부도협동조합 2025년 제3차 이사회가 9일 오후 선감생활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양운영(왼쪽에서 세 번째)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조합소식과 행사안내 등의 카드뉴스 전달, 지역신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치기로 논의했다.

또 신규조합원을 소개하는 조합원에게는 활동포인트(10,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년간 진행해온 연속 사업이다.

올 6월 현재 대부도협동조합 조합원은 927명이고 출자금은 4억3천265만원이다.

발전소별 매출현황은 3월부터 6호 발전소(181.25kw)가 추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총 5개 발전소(556.21kwp)

의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액은 2천967만 여원이다.

지난해까지 태양광발전소 1~4호기(374.96kW)를 운영해 조합원에게 연 6%의 출자배당금을 지급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7개소(835.26kW)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부도협동조합은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와 연대해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화 운동에도

적극 나서면서 기후위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운영 이사장(본지 회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작은 행동이다.”면서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추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도협동조합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대부동 지사협 행복담은 열무김치 나눔 행사

취약계층 50가구 선정해 직접 담근 열무김치 나눔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담은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워지는 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열무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준비된 열무김치는 취약계층 50가구에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최희영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가 이웃들에게 더운

여름을 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행복한 대부동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사협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사협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명절 꾸러미 사업, 음식 나눔 사업 등으로 행복한 대부동 공동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담은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정희재 기자

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마무리

대부도 3개교 병설유치원 공동교육과정으로 실시

안산시 대동초병설유치원이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했던 하이(HI)수영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유치원 하이(HI)수영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으로 안산관내 7개의 시범유치원에서 진행됐다.

대동초병설유치원은 전문 강사진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 아이들이 단계별로 생존수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발차기, 도움 기구를 이용하여 물에 떠보기 ▲도움 기구를 이용하여 물에 누워서 떠있기, 장애물 피해서 잠수해보기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배우기, 코와 입 막고 점프해보기 ▲조금 더 깊은 물에서 연습하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유치원 하이(HI)수영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를 목표로 아이들이 기본 수영 능력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구조 동작과 안전 대처법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동초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김OO 유아는 “처음에는 귀까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하니 이제는 수영장 바다

를 타지할 수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동초병설유치원 교사 천윤주는 “이번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물과 관련된 안전 문화를 몸에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만 부족하지 않은 예산 지원, 학급당 많지 않은 적절한 유아수가 보장되어야 교사들이 좀 더 수영교육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현장 사진에서는 아이들이 물 속에서 웃으며 연습에 임하는 모습과, 선생님이 꼼꼼하게 안전수칙을 지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러한 교육 활

동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안전 감각을 체득함과 동시에,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안산시, 대형차 불법주정차 근절에 행정력 집중... 시민 안전 확보

인프라 확보, 집중단속·계도 병행

민선8기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미 관내 3곳에 총 561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팔곡동에는 총 190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도 개방했으며, 추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대형차 주차 인프라 확보,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공영차고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 집중 계도·단속 계획 등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형화물차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해시는 주차시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시민의 불편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는 교통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해결을 시청의 핵심 사안으로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이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형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조성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관내 3곳에 총 561면 규모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에는 팔곡동 95번지 일원에 190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개방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했다.

대형차 주차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에 35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선부동 93-1번지에는 3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내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주차시설 확충에 더해 시는 불법주차 대형자동차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대형차 불법주정차는 보행자 안전과 긴급 차량 통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장 계도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선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근절해 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2년간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561면, 공영차고지 190면 조성이라는 결실을 보

게 됐다"며 "앞으로 사동과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앞으로도 주차 인프라 확대와 집중 계도·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대학교 교양학부 민진영 교수 스승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여

안산대학교의 경쟁력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

안산대학교는 26일 채플관 대예배실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 전달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에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 교원을 표창한다. 이번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국무총리 표창은 교양학부 민진영 교수가 받았다.

교양학부 민진영 교수는 2002년도 안산대학교에 부임하면서 22년이 넘는 재직 기간 동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다양한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헌신하여 뚜렷한 공적을 쌓음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하려는 안산대학교의 사명 실현과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민진영 교수는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교육과 지도 활동에 여러 보직 등으로 참여하며 재직기간 동안 꾸준히 헌신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학과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여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 마련과 동시에 글로벌 전문 인재로의 양성에 기여했으며 대학 내 교육과 지도 활동을 통한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담당 학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산학협력 활동에 남달리 봉사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기회를 마련하고 확장시켜 안산대학교 핵심역량인 현장적무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다수 양성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밖 교육 서비스 활동을 통한 지역 내 전연령층 글로벌 시민 육성으로 안산대학교 수탁기관인 안산시화정영어마을 원장으로 약 8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초등영어교육 중심이었던 안산시화정영어마을을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최우수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오는 영어전문 평생교육 공공기관으로 혁신하여 발전시켰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과 성인에 이르는 전연령층 시민에게 맞춤형 영어와 세계문화 평생학습 기회를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사명에 특화된 대학으로서의 안산대학교의 위상을 공고히 확립하고 지역 평생교육 거점으로서 대학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안산대학교의 경쟁력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대학교는 26일 채플관 대예배실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국무총리 표창은 교양학부 민진영 교수가 받았다. 김태창 기자

안산그리너스FC, 장민준 헤딩골, 박정우의 썸볼 '인내'와 '절실함'이 돋보인 안산, 부산에 2-0 승리하며 2연승!

안산그리너스FC가 '인내'와 '절실함'이 돋보이는 경기로 2연승을 거머쥘었다.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가 7일(토) 오후 7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진 부산아이파크(이하 부산)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안산은 지난 경기와 동일한 3-4-1-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앞선 경기 귀중한 결승골을 기록한 류승완과 김우빈이 섰고, 그 밑을 송태성이 받쳤다. 박시화, 손준석, 배수민, 임지민이 중원에 자리잡았고 수비 라인엔 장민준, 조지훈, 김현태가 섰다. 주장 이승빈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부산의 기세는 매서웠다. 경기 초반 안산은 주도권을 장악한 부산의 돌파와 연이은 크로스에 고전하며 실점을 막아냈다. 이에 맞서 안산은 강한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통한 공격을 전개하며 맞대응했다. 부산은 장신 공격수 곤잘로를 필두로 한 외국인 선수들에게 공격을 집중시켰지만 이승빈이 골문을 지켜내며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다.

전반전에 주도권을 내줬던 안산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박재준을 투입하



안산그리너스FC가 7일(토) 오후 7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진 부산아이파크(이하 부산)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며 공격의 활로를 모색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던 후반 61분, 세트피스에서 고대하던 첫 골이 터졌다. 중원에서 손준석이 얻어낸 프리킥을 조지훈이 올려 붙였고 이를 중앙으로 쇄도하던 장민준이 헤딩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답답하던 흐름에 터진 승리의 한방이었다.

이후 여유를 찾은 안산은 조금해진 부산의 빈틈을 공략했고, 부산 역시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통해 동점골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부산의 연이은 공격에도 안산의 수비진과 골키퍼 이승빈의 활약하며 실점을 막아냈다. '인내'를 강조한 전술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신인 선수 박정우가 93분에 투입되며 2분의 기회를 받았다. 측면에서 공을 잡은 박정우는 신인다운 패기로 드리블을 시도했고, 사라이바에게 내주고 골대 앞으로 침투해 결국 득점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울공예디자인으로부터 출생 축하 용품 기탁받아

배넛저고리, 모자, 턱받이 목욕타올 등 30세트 해당

안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울공예디자인으로부터 손바느질로 직접 제작한 출생 축하 용품(배넛저고리, 모자, 턱받이) 3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울공예디자인(대표 한명자)은 2021년 섬유공예를 전공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 힘을 모아 창업한 관내 여성기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해 3년 동안 출생아를 위한 배넛저고리, 모자, 턱받이, 목욕 타올 등을 제작하고 관내 여러 기관에 나눔을 지속 실천

하고 있다.

한명자 한울공예디자인 대표는 "태어나 처음으로 입을 배넛저고리의 기능과 디자인을 연구, 손수 제작한 옷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저출생 시기 출산 가정에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울공예디자인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울 한울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어 주신 물품은 출산 예정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고잔동 주민자치회, 원고잔공원 철쭉 식재 사업 마쳐



단원구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3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인 원고잔공원 철쭉 식재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원고잔공원 철쭉 식재 사업은 지난해 고잔동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원고잔공원의 유휴 공간에 철쭉을 심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는 고잔동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했다.

이현원 고잔동 주민자치회장은 “살

기 좋은 고잔동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떼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치 사업을 통해 고잔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잔동장은 “주민 여러분과 고잔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7@naver.com

부곡동 지사협,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확인 본격 가동



상록구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어르신 안부확인 프로젝트 ‘싱크대를 부탁해’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어르신 안부확인 프로젝트 ‘싱크대를 부탁해’는 저소득 독거노인 50가구를 대상으로 싱크대 청소,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 맞춤형 복지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다.

사업 기간 중 지사협 위원들이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

회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경실 민간위원장은 “싱크대를 정리하며 어르신의 마음도 정돈되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 부곡동장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성포동,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상록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주관하에 ㈜스마트코리아피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성포동 직능단체원들이 함께 모여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현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은 “따뜻하고 맑은 날씨에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성포동장은 “매년 ‘짜장면 나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님과 회원, 그리고 봉사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화합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와동, 동아리 ‘마실나온사람들’ 걷기 프로그램 운영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우리동네 마을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건강동아리 ‘마실나온사람들’이 걷기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걷기 프로그램은 주 2회 와동 체육공원 등 관내 공원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기와 스트레칭 등의 신체활동을 실시해 건강 증진은 물론 고독감 및 우울감 예방, 정서적 지지 형성과 이웃 간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우리동네 마을건강사업’은 주민생

활권에 가장 밀접한 동 단위에서 지역의 건강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발굴하고, 마을건강활동가, 건강동아리, 마을건강지킴이 등의 활동을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고 건강수명의 연장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월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홈닥터’ 미담 눈길



상록구 월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의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독거노인 가정 등 6가정을 방문해 안전손잡이·천장기동봉 설치, 노후된 화장실 샤워기 및 세면대 배수관 교체, 고장난 전등 교체, 수목 전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최근 6월 5일에도 월피동 지사협 오윤석 나눔지원분과장(아동공동생활 가정 미라를 시설장)이 주축이 돼 안

전물품 등을 설치했다.

주거홈닥터 서비스를 받은 오모씨 어르신은 “안전 손잡이 덕분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넘어질 염려가 없다”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줘서 고맙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재만 공공위원장과 이옥희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촘촘한 복지로 다가가는 월피동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7@naver.com

이동, ‘2025년 매실따기’ 행사 성료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10일 구룡매화동산운영위원회가 구룡공원 매화동산에서 ‘2025년 매실따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룡공원 매화동산은 지난 2008년 이동의 동화(洞花)로 매화나무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헌수와 식재를 통해 현재 1천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조성돼 있다.

이날 매실따기 행사는 지역주민과 직능 단체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한 매실맛을 구입해 참석자가 매실을 수확

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오필선 구룡매화동산운영위원장은 “관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매실따기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단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분들과 직능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구룡매화동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수확된 매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원·환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행정사 사무소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득급	행정심판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득급	내용증명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득급	출입국업무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득급	영양업자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득급	법인설립

박 정 탁

대표 행정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시화호 프리미엄을 담은 **First Class**의
삶을 누리보세요

분양
임대
매매

(주)대동토지개발 대표 양금순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세무사 최육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웅진군 서해3도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합동훈련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위해

웅진군은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서해3도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간담회' 및 '실무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과 교육, 간담회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처치를 위한 실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11일 오전 소청도에서 실시한 '2025년 서해3도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합동훈련'은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점검과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소청도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인천소방본부 주관으로 중부소방서(소청도 의용소방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 웅진군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대응 역량 및 기관 간 협업 능력을 집중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백령면사무소에



웅진군은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서해3도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간담회' 및 '실무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했다. 김태창 기자

서 '서해3도 응급의료 체계개선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국군의무사령부, 웅진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방안 ▲서해3도 메디온 추진 현황 및 주민홍보 방안 ▲격오지 군 의무부대 민간 진료 개방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과 군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12일 오전에는 의무사령부 주관으로 백령면사무소에서 '의료종합상황센터 환자지원 교육'이 실시되었다. 웅진군 내 유관부서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절차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경복 군수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도서지역 응급이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청면 6월 1차 환경정화행사(Clean-Up Day) 실시

옥죽동 모래사막 사구와 인근 산책로 일원에서

웅진군 대청면(면장 임승운)은 11일, 옥죽동 모래사막 사구와 인근 산책로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Clean-Up Day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린업데이는 대청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옥죽동 모래사막 사구 및 산책로 일원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이장, 지질해설사 및 면 직원 등 약40여 명이 참여해 약 3톤 가량의 쓰레기와 생태계교란 식물을 수거했다. 정화 활동이 진행된 옥죽동 모래사

막 사구는 대청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길이 약 1km, 폭 200m ~ 300m의 모래언덕으로 4마리의 낙타 조형물과 어린왕자를 테마로 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포토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임승운 대청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장님들과 지역주민, 지질해설사분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Clean-Up Day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섬 대청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웅진군 대청면은 11일, 옥죽동 모래사막 사구와 인근 산책로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Clean-Up Day를 실시했다. 양운영 기자

섬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진료

가천대길병원 소이작도 무료진료 건강권 보장

웅진군은 11일,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천대길병원과 협력하여 소이작도를 찾아 무료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침 치료, 건강상태 체크 등 다양한 진료가 이뤄졌으며, 진료 후에는 직

접 약을 처방·제공해 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이작도는 의료기관이 없어 평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간단한 진료만 제공받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진행한 이번 진료는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진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총 98명 모집... 6월 18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웅진군은 하계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기관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98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면사무소 등 관내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행정

업무 보조 및 민원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6.11.)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웅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등록기준지 제외)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에 있는 대학생(평생교육원에 의한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대학원생 제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웅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선화 기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웅진군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3개월간

웅진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2025년 웅진군 어린이 영어캠프』를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어캠프는 지난 4일 웅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영어캠프는 도서·벽지 등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프로그램은 웅진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개소, 2세부터 5세까지 총 195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와 한국인

보조강사가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체험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원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교구를 활용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직접 찾아가는 영어캠프를 진행하여 원아들의 장소에 대한 안정감을 통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균형있는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2025년 웅진군 어린이 영어캠프』를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영어캠프는 지난 4일 웅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태창 기자

“생활 속 물절약, 나부터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월면, 생활 속 물절약 캠페인 전개

웅진군 자월면(면장 김유화)은 11일, 한정된 지하수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물절약, 나부터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속 물 절약 방법으로는 양변기 수조에 물 채운병 넣기, 절수형 변기 수조 이용하기, 빨래는 충분

히 쏘였을 때 한번에 모아 돌리기, 샤워기 헤드에 절수기 장착하기, 양치할 때는 양치컵 사용하기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유화 면장은 “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며, 군민과 자월면을 찾는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 첫걸음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물 절약 동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 자월면은 11일, 한정된 지하수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다. 윤성용 기자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신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 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신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쳐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

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과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신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펼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 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기청년 갭이어 발대식 열려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등 1,100여명 참석

금속 가공업체인 디자이너 조혁빈 대표는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면접에 참가했다. 면접관에게 자신을 대장장이 견습생이라고 소개한 그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속 분야 장인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제품을 공동 제작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조 대표는 그해 경기도의 지원으로 칼 명장 조상진 장인, 동의보감촌 류성열 대장장이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금속 분야 장인들을 만나고 협력에도 성공했다. 조 대표는 현재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 '자이너'라는 이름의 금속 가공 업체를 창업하고 장인들과 함께 전통 기술에 기반한 '칼'을 생산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선발된 청년 1,091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비, 적성검사, 멘토링,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조혁빈 대표의 사례를 연극 형식으로 소개해 참가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도왔다. 연극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독 참여자인 이진아 씨가 함께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며 한 번에 20여 명씩 두 차례 청년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브라운백 미팅 계획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어 청년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바깥

에서 알을 깨려고 어미 닭이 쪼는 노력, 두 번째는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같이 깨려고 하는 노력"이라며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틀을 바깥에서 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저도 같이 그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들도 (알) 안에서 같이 쪼아 쪼서 강고한 틀을 깨고 나오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저는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갈 형편도 못돼 직장 다니면서 나중에 야간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공무원이 됐는데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했다"면서 "지금 은 몇몇 차선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각각 자기하고 싶은 일을 찾아 각자 각자가 다 용이 되는 여러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참여 청년들은 행사장 입구의 트랙과 아치를 지나 입장하며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기념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 앞에서 각자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갭이어, 사다리, 청년참여기구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담이 소개됐으며, 면접에 함께한 청년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2023년 시작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경쟁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800명에서 올해 1,091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했다.

갭이어에 참여한 청년들은 전문가 멘토링과 1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자신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며,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참여자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우수사례집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임태희 교육감 “도전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창업가 정신 필요”

교육청 ‘창업교육 협력모델’ 구축 4차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9일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세대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가'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떤 규모의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삶의 방향에 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이 교육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그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임태희(왼쪽에서 두 번째) 경기도교육감이 9일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김동연 도지사, 도의회 의장단과 만난

김동연 도지사는 7일 오후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수원시 인계동 소재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2시간 동안 진행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생 예산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정협치위원회' 복원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원활한 소통에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 도정 복귀 이틀날인 지난 4월 30일 김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을 방문한 바 있다. 김태창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17년 근무 중 세 차례나 대부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 공직자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의 명암을 들어본다 박정탁 행정사

안산시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도에 서 행정사 사무실과 측량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탁 행정사는 대부동 성장관리 계획 지정에 대해 확실하게 명암이 있다고 말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으로부터 소외된 주민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엄격한 행정집행이 예상돼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인근지역 화성과 웅진군 영흥도 지역을 예로 들며 “왜 우리 안산시는 선제적으로 앞서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인가”하고 반문한다. 박정탁 행정사가 그리고 있는 대부도의 10년 후 모습을 담아봤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정의부터 알고 가도록 하지요.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선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대부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이다. 지역의 특성상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의 개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안산시가 대부동의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디를 지정한 것인가.

주로 해안가 지역을 위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지정이 되어 있어 제외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정한 만큼 아름다운 섬, 보물섬으로 알려진 대부도가 제대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으로 기억되던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성장관리계획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최고 20%였다. 지정이후에는 최고 30%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물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인센티브는 주어진 것이고 개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더 많은 곳에 성장관리계획지정이 되었으면 했지만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동 인구는 1만명이 채 안된다. 5만명의 대부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성장관리계획 지정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어디이고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는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들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폭과 도로기부 채납 부분이 인센티브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해

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다는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서운해 할 수 있는 곳이다.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받았어도 시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곳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체계적인 개발이 유도된다고 볼 수 있다.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환경을 고려한 개발 유도로 자연훼손도 최소화 가능하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점쳐진다.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용이하며 주민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건축·무분별한 용도 변경 등 문제점이 적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대부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 유지가 가능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인프라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의 단점을 꼽는다면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관광 중심 구조로 산업 다변화 부족,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사의 참여 저조 등도 우려된다. 주민 참여 및 공감 부족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시 반발이 발생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참여형 계획 수립 체계 구축도 생각할 수 있다. 균형 잡힌 개발 유도로 생태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 관광·농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적 발전방향 모색등도 필요하다. 기반시설 확충도 생각해야 한다. 끝없는 교통 인프라 개선(평택~시흥간고속도로, 대부도~육지 간 연계성 강화)이 필요하고 생활 편의시설(병원, 교육 등) 확충도 필수다. 이 밖에도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연계가 필요하다. 갯벌, 숲 등 생태 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 탄소중립 도시 모델 시범지로서의 역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시, 토지 소유자가 유의할 점을 꼽는다면

무조건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다 건폐율 30%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가 어려운 부분도



박정탁 행정사는 대부도에서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도 함께 운영한다. 안산시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부도에서만 세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부도를 잘 알고 있는 행정사다. 대부도에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담당 업무를 해왔다. 그 경험으로 대부도에서 오늘도 주민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박정탁 행정사를 만났다.

김태창 기자

주로 해안가 지역을 위주로 지정한 것이 특징적인 사례 혜택이 큰 지역은 시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들 인점 중요

있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아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시, 토지 소유자의 대처방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접한 도로의 현황을 확인한 후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의 조치로 근생 소매점으로 준공 받은 건물들의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준공 받은 건축물 경우에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 단 이 역시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

이다. 현재 해안로에 성장관리계획 지정이 된 부분 중 대부분은 이미 건물이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지정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10년 후 대부도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10년 후 대부도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안산시의 계획대로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취지대로 개발이 된다면 현재의 대부도보다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도는 10년 후 생태 보전형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 친환경 주거단지 및 귀촌 유도형 마을 조성, 대중교통 확충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갯벌·해양자원 기반 생태관광 강화, 6차 산업(농업+가공+관광) 활성화, RE100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산시가 대부동의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

다. 인근 지역 화성과 웅진군 영흥도의 경우,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데 대부동은 없다는 것이다. 또 건물층수도 인근지역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4층까지 허용하는데 반해 대부동은 3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수용성, 제도 유연성, 경제성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 대부동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친환경 복합 정주형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내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점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박정탁 프로필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사
- △ 대부도 3차례 근무(12년~13년, 18년~21년)
- △주요 업무: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2023년 정탁행정사사무소 운영
- △2024년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운영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0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드라마·영화] 장르별 배경지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1965년에 발표된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발표된다. 그 후 1966년 서울 중앙방송국(현 KBS) 라디오 드라마, 1967년 섬마을 선생 영화가 만들어졌고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 작사 및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은 이경재 연출가가 썼기 때문에 그 배경지가 같을 것 같은데 각 장르별 배경지가 달랐다.

2010년 4월 6일 박춘석 작곡가 및 이경재 작사자와 호형호제(呼兄呼弟)하였던 KBS 김재형 연출가께서 대남초등학교 김선철 전 교장에게 “교장 선생님 학교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배경지이고, 그 학교 총각 선생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노래의 배경지라 주장하는 곳은 ①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② 금당도 금당초등학교, ③ 하태도 하태분교, ④ 대이작도 계남분교, ⑤ 소야도 소야분교 등 다섯 개였다. 이들의 주장 근거, 가사와 소재의 관련성, 작사자 일행의 접근성 등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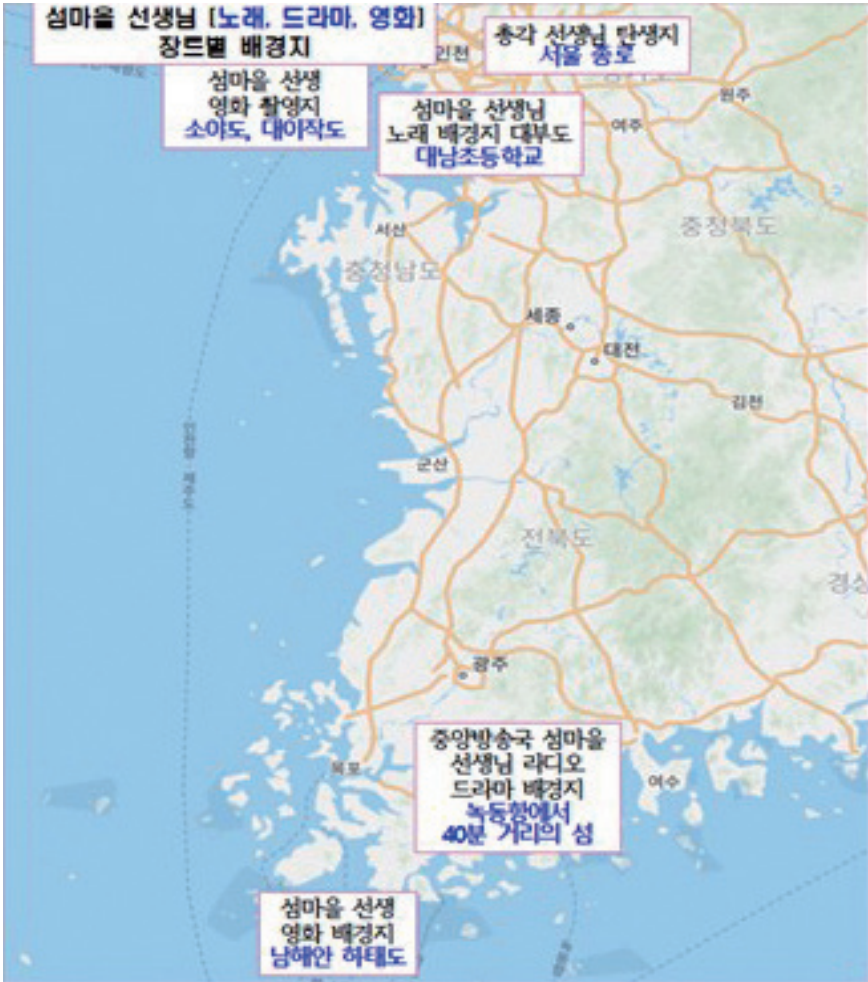
1965년에 발표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부도 대남초등학교(大南初等學校)다. 김재형 PD는 “1960년대 초 KBS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연출가였던 이경재 작곡가 일행이 대부도 대남초등학교에 다녀간 후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발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966년 서울중앙방송국(KBS) ‘섬마을 선생님’ 라디오 드라마의 배경지는 녹동항 근처의 섬이다. 이 드라마는 폭풍우가 엄청나게 불던 늦은 밤, 난산의 아주머니를 태운 총각 선생님이 40분이 걸려 녹동항에 도착하여 순산(順産)한다. ‘섬마을 선생님’이 주제가였던 이 곡은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발매 일주일 만에 히트했다. 금당도는 완도군이지만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페리호로 1시간 걸리는 섬이다.

1967년 김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 영화 대본상의 배경지는 남해안 하태도이다. 첫 부분은 1966년 말 의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온 명식(오영일)은 부모님과 약혼녀 수연(안은숙)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해안 하태도로 향한다.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전우 동하가 낙후한 자신의 고향마을을 계몽시켜 달라고 남긴 유언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 1960년대의 하태도는 목포항에서도 가기 힘든 먼섬이었다. 이 노래는 ‘섬마을 선생’ 영화의 주제작이며, 영화를 촬영한 곳은 대이작도 계남분교와 소야도 소야분교였다. 대이작도에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와



2018년 8월 21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김선철). 섬마을선생님 소개



섬마을선생님 노래 드라마 영화 장르별 배경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 섬 처녀가 서울로 떠나가는 선생님이 탄 배를 향해 손을 흔들던 문화 소나무가 있다. 김기덕 감독은 이 영화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섬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해마다 대이작도와 소야도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촬영지로 정했다고 한다.

위 다섯 개의 섬과 학교를 비교하면 금당도와 하태도는 키가 큰 동백

군락은 많으나 해당화 군락지가 없고, 철새 떼가 찾는 곳이 아니며, 작곡가 일행이 다녀오기에 너무나 먼 섬이었다. 웅진군 대이작도와 소야도는 갯벌이 적어 철새와 구름이 쫓겨가는 염전이 없다. 따라서 넓은 갯벌, 철새, 염전, 해당화 군락지 등이 이 노래의 소재와 일치하고 있고, 서울에서 오가기 쉬운 섬 대부도가 배경지이다.

데스크 칼럼

경수초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두고 학교복합시설 조성 중심으로 검토이유(?)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은 도심 내 위치한 경수초등학교의 폐교를 결정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해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이 아닌 도심 내 초등학교 폐교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학력인구 감소, 도시개발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도심 내 폐교의 의미를 보자. 도심에서의 초등학교 폐교는 단순히 학생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는 향후 도시계획 및 공공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 복지, 문화, 행정 기능을 융합한 통합형 공공시설로, 기존 학교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복지 및 커뮤니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 밀착형 공간으로의 전환은 매우 적절하다.

그렇다면 폐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교육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진로 체험관 등으로 구성해 전 연령층이 활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문화·복지 공간으로는 주민센터, 건강관리센터, 지역예술회관, 어린이·청소년 돌봄센터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필요하다. 기존 운동장, 교정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 정원, 공원 등 시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일부는 지역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복합시설 추진 방식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춘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안산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관계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토지 및 재정의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협약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단계적 조성 및 시범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의 일괄 건립보다는 단계적 조성을 통해 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대 효과를 보도록 하자. 학교복합시설 조성은 유류 부지 활용이라는 공간적 해결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 교육 기회의 확대,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도심 내 폐교 문제에 대한 선도적 사례로서 타 도시에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수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미래형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자산의 재해석과 지역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크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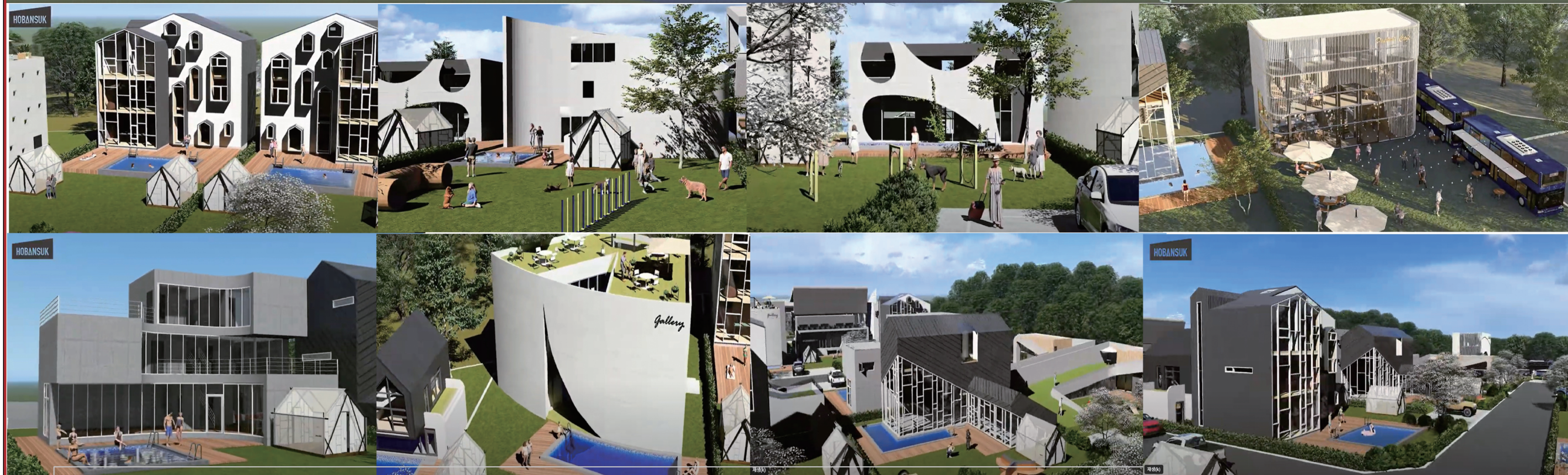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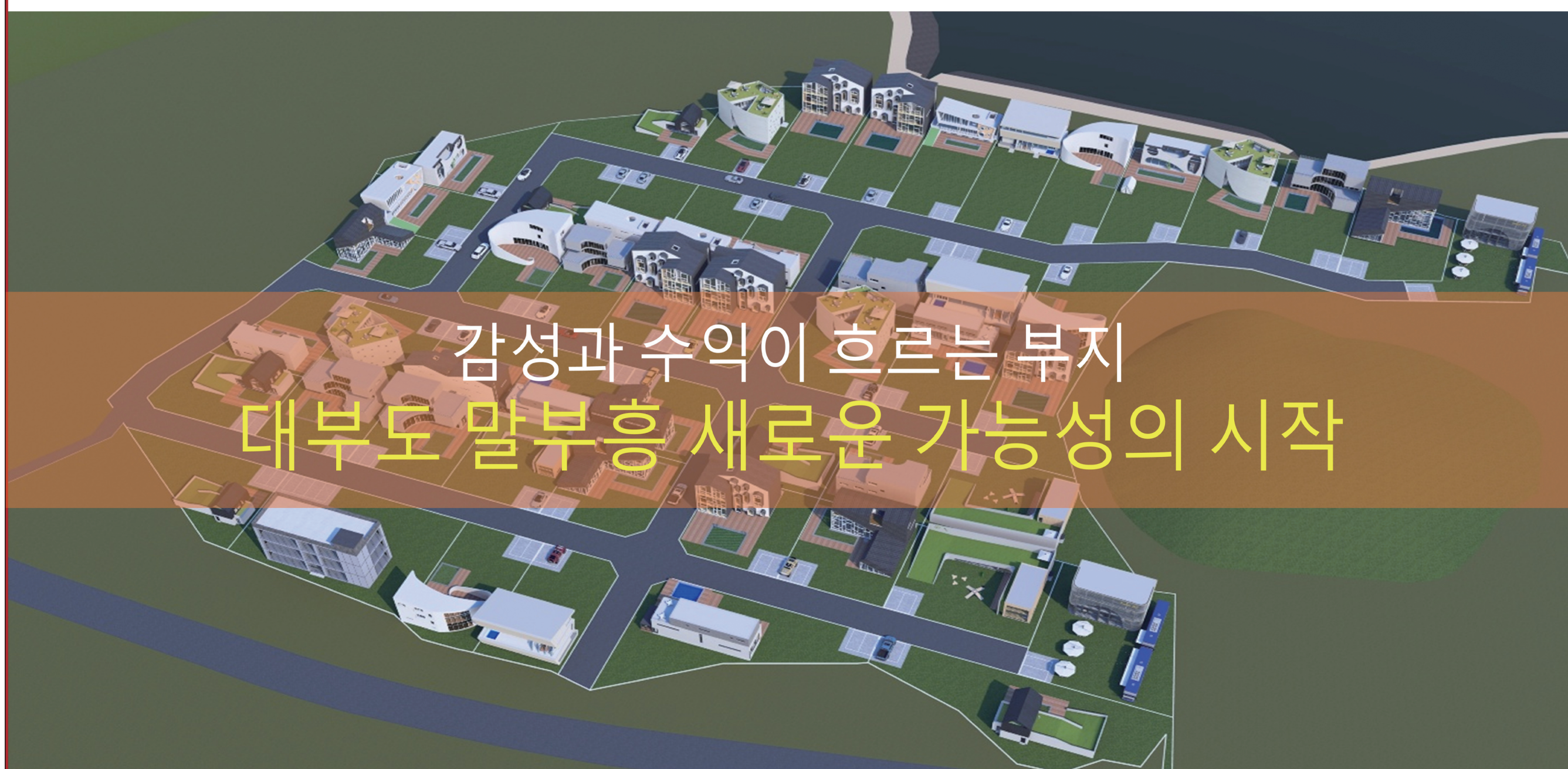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공방 010-4071-2797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